

연말특집 ①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1년

■ 2021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 _ 1분기 :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과 ‘LH 투기의혹 사건’
- _ 5060세대, 2040세대와 달리 정치적 사건 주목 경향
- _ 2분기 :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과 ‘윤여정 아카데미 수상’
- _ 여자 2030세대,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 당선’ 관심 낮아
- _ 3분기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 압도적
- _ ‘오징어 게임 세계 1위’, 모든 계층에서 1위
- _ 4분기 : ‘위드 코로나 시행’과 ‘전두환 사망’ 높아
- _ 양 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기억, 계층별로 달라

■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 _ ‘오징어 게임’ 가장 높고, ‘백신 접종’, ‘LH투기’ 순
- _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1분기와 2분기에 많아
- _ 계층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다소 달라

■ 2021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_ 국민 대다수,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졌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2월 3일(금) ~ 12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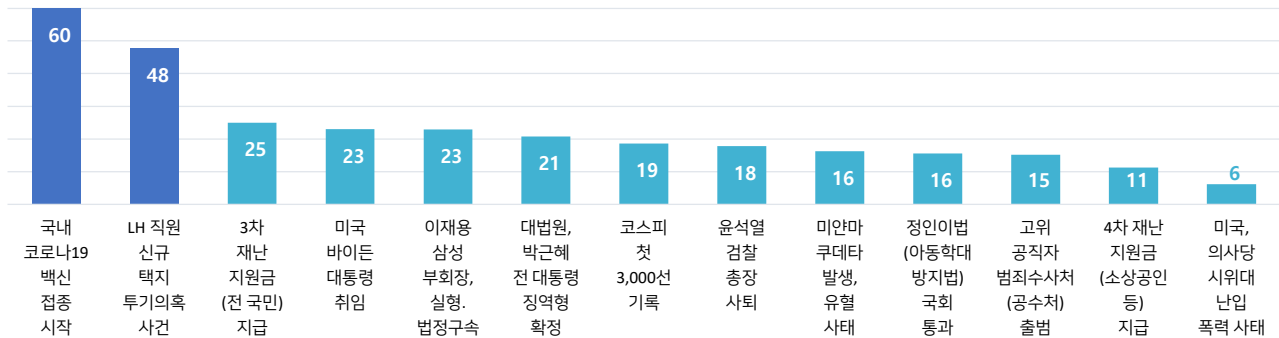
2021년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1분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LH 투기의혹 사건'

- 2021년 올해 1분기에 있었던 사건 중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조사됨(60%)
- 1분기(1~3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3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미국, 의사당 시위대 난입 폭력 사태	② 코스피 첫 3,000선 기록
③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법) 국회 통과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⑤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	⑥ 이재용 삼성부회장, 실형.법정구속
⑦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⑧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⑨ LH 직원 신규택지 투기 의혹 사건	⑩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⑪ 미얀마 쿠데타 발생, 유혈 사태	⑫ 3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⑬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등) 지급	
- 다음으로 'LH 직원 신규택지 투기 의혹 사건'(48%), '3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25%),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23%),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실형.법정구속'(23%)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적은 응답을 기록한 사건은 '미국, 의사당 시위대 난입 폭력 사태'(6%)이고, 다음으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등) 지급'(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15%) 등이었음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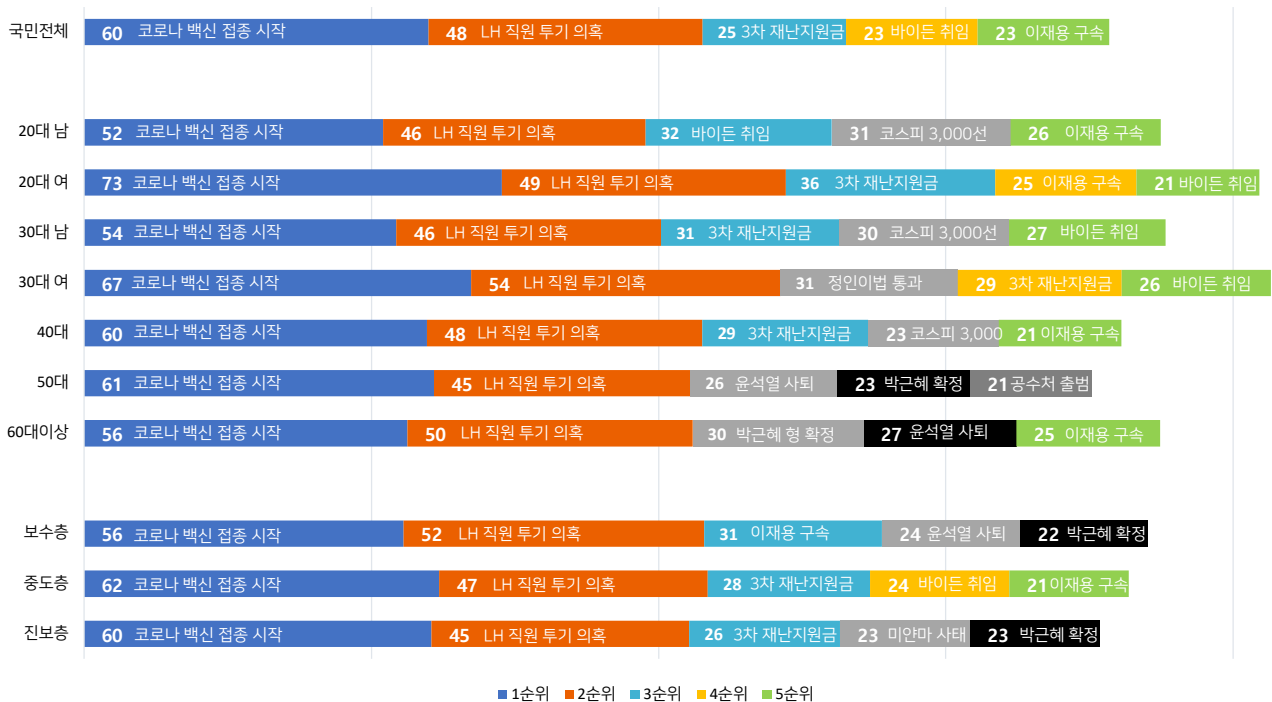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감염병인 것으로 나타남
 - :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60%라는 높은 수치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꼽혔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25%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상위권에 오름
 -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가 일상을 지배하는 양상임
 - : 참고로 작년(2020년) 1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83%)이 차지함 (자료 : 케이스탯 리포트 『국민기억으로 보는 2020년』(2020년 12월 10일자))
- ☑ 'LH 직원의 신규 택지 투기의혹 사건'도 많은 국민이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았는데(48%),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 'LH 신규 택지 투기의혹 사건'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음

□ 5060세대, 2040세대와 달리 정치적 사건 주목 경향

- 1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면 2040세대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5060세대는 정치적 사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임
- 기억나는 사건 1위, 2위는 변함없는 가운데 3위부터 순위가 달라지는데 2040세대는 사회적 문제를 더 기억하고 있음
 - '3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코스피 첫 3000선 기록', '정인이법 통과' 등이 상위에 오름
 - 특히 여자 30대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법) 국회 통과'가 3위에 오를 만큼 높은 관심을 보임
 - 아래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이에 비해 5060세대는 정치적 사건을 더 기억하고 있음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 '공수처 출범' 등이 상위에 오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1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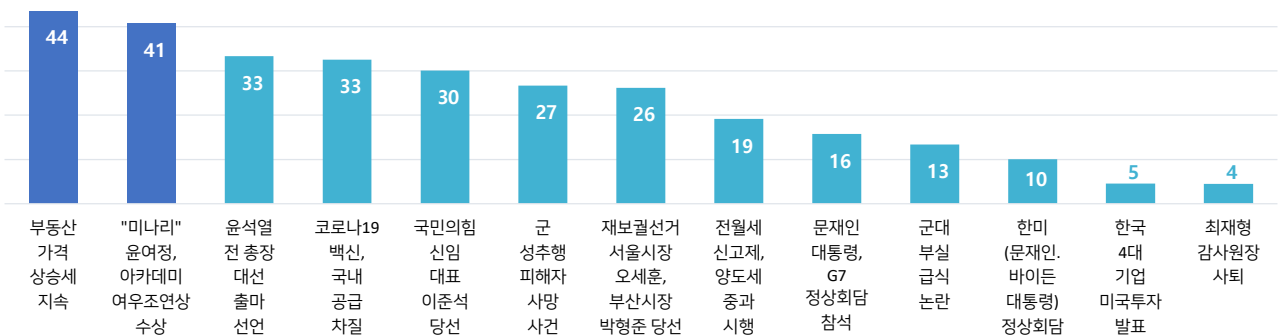
- ☑ 국민들은 지난 1분기에 동일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세대별로 기억하는 사건은 다소 다르게 나타남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은 동일하게 기억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2040세대와 5060세대가 중요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다름
 - : 주로 2040세대는 사회적 사건들을 기억하는 데 비해, 5060세대는 국내 정치적 사건을 기억함
 - : 이러한 세대별 '기억의 차이'는 곧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세대별 '관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주관적 이념성향에서도 '관점의 차이'에 기반한 '기억의 차이'가 나타남
 - : 보수층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윤석열 총장 사퇴를 기억하는데 비해
 - : 진보층은 3차 재난지원금, 미안마 쿠데타 발생, 유혈사태를 기억하는 차이를 드러냄

□ 2분기 :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과 '윤여정 아카데미 수상'

- 2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44%)과 "미나리" 출연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41%)이 높게 나타남
 - 2분기(4~6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3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함

①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당선	②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 차질
③ '미나리' 출연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④ 한미(문재인-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⑤ 한국 4대기업 미국투자 발표	⑥ 군대 부실급식 논란
⑦ 전월세 신고제, 양도세 중과 시행	⑧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⑨ 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⑩ 국민의힘 신임 대표 이준석 당선
⑪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담 참석	⑫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⑬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33%),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 차질'(33%), '국민의힘 신임 대표 이준석 당선'(30%) 등으로 조사됨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4%)와 '한국 4대 기업 미국투자 발표'(5%)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2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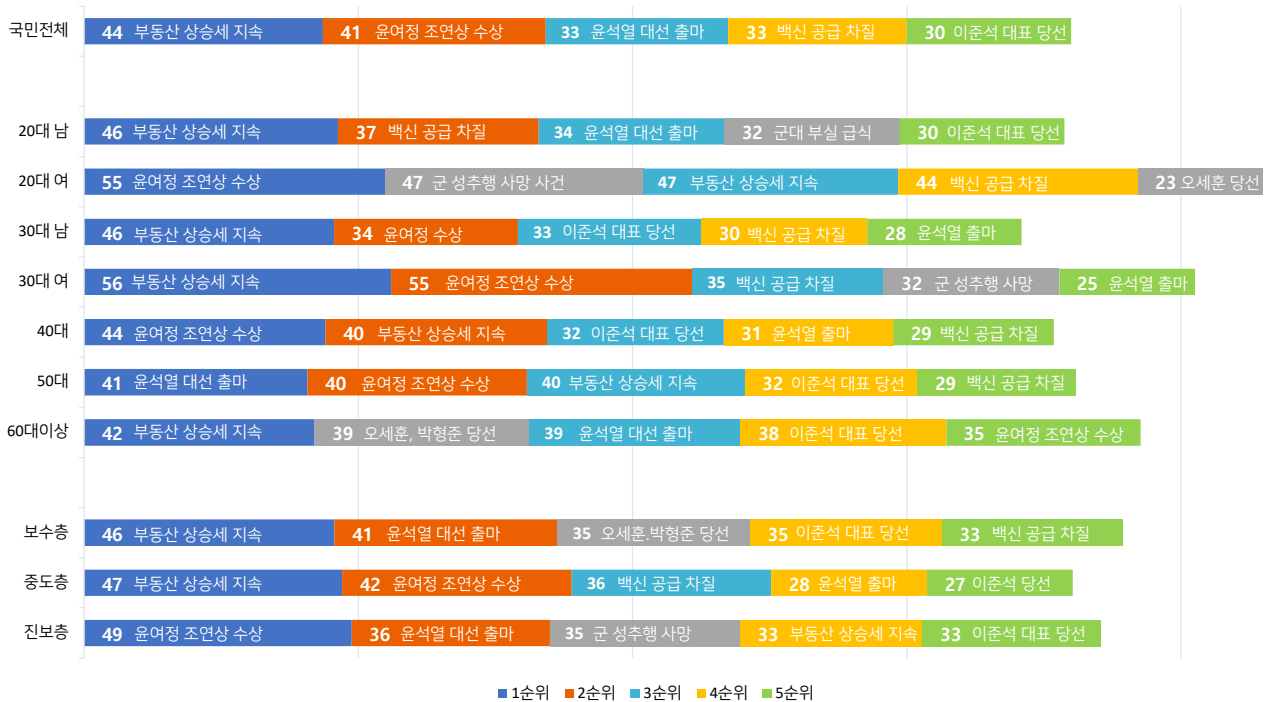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은 거의 1년 내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파장이 지속된 해임
 - : 1분기의 'LH 신규 택지 투기의혹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2분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됨
 - : 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찬성 여론이 50%를 상회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지적임
- ☑ 또한 2021년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해로, 국민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임
 - : 41%의 국민이 "미나리" 출연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을 꼽았는데, 이는 1위를 기록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44%)과 비슷한 수치임
- ☑ 한편, 2분기는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선언'이 3위(33%)이고, '국민의힘 신임대표 이준석 당선'이 5위를 기록함(30%)
 - : 여기에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당선'도 7위(26%)를 기록함
 - : 2분기 기억나는 사건 1위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과 이에 따른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임

□ 여자 2030세대,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 당선' 관심 낮아

- 2분기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집중되었던 시기로 4월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준석 대표 당선)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등이 이어졌음
- 이에 따라 앞서 1분기와 달리 2040세대들도 정치적 사건을 주목하고 기억함
 - 5060세대는 물론 2040세대들도 '윤석열 대선 출마', '이준석 대표 당선' 등 정치적 사건을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음
- 다만, 여자 2030세대의 경우 유일하게 '이준석 대표 당선'에 대한 기억이 낮은 특징을 보임
 - 여자 20대와 여자 30대 모두 '이준석 대표 당선'이 상위권에 없고, 대신 '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상위권에 있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한편, 남자 20대는 국민전체적으로 순위가 낮은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4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함
 - 대신 '윤여정 조연상 수상'에 대한 기억은 상대적으로 낮아 상위권에 위치하지 않음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2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12.05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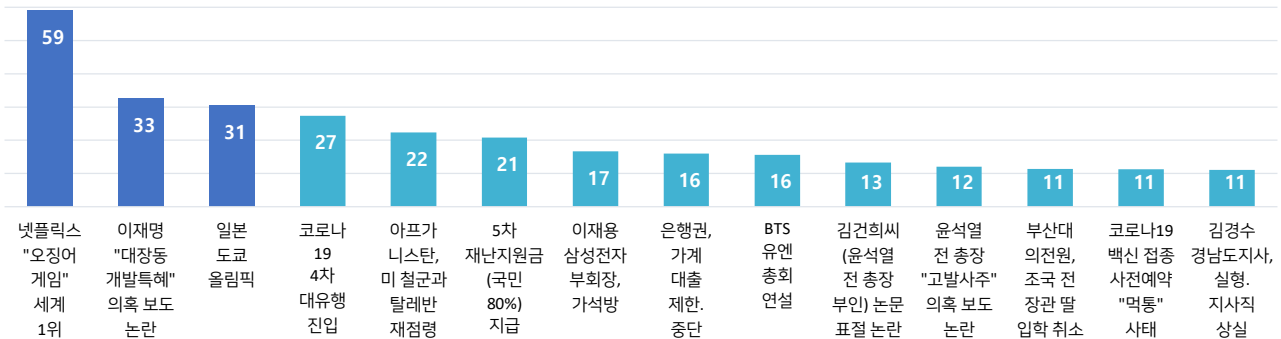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형 정치 이벤트가 펼쳐질 경우 국민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정치적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남
 - : 1분기에서 보듯 204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차이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없는 일상시기의 차이로 분석됨
- ☑ 또한 정치를 바라보는 여자 2030세대의 관점은 다른 세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국민의힘 신임 대표 이준석 당선'은 정치권 세대교체로서 국민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여자 2030세대의 기억에 '이준석 대표 당선'은 상위권에 존재하지 않음
- ☑ 이러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가 '페미니즘' 공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여자 2030세대는 이 대표의 페미니즘 공격을 '양성평등 부정'으로 해석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임
 - : 이 연장선에서 여자 2030세대는 '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기억하지만, 남자 20대는 기억하지 않는 차이가 나타남

□ 3분기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 압도적

- 국민들이 3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로, 5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3분기(7~9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4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① 김건희씨(윤석열 전 총장 부인) 논문 표절 논란
 - ②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
 - ③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지사직 상실
 - ④ 일본 도쿄 올림픽
 - 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 ⑥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먹통' 사태
 - ⑦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과 탈레반 재점령
 - ⑧ 부산대 의전원,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 ⑨ 은행권, 가계대출 제한.중단
 - ⑩ 5차 재난지원금(국민 80%) 지급
 - ⑪ 윤석열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보도 논란
 - ⑫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논란
 - ⑬ BTS 유엔총회 연설
 - ⑭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세계 1위
- 다음은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논란'(33%), '일본 도쿄 올림픽'(31%),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27%) 등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 지사직 상실'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 '먹통 사태', '부산대 의전원,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취소' 등으로 공히 11%를 기록함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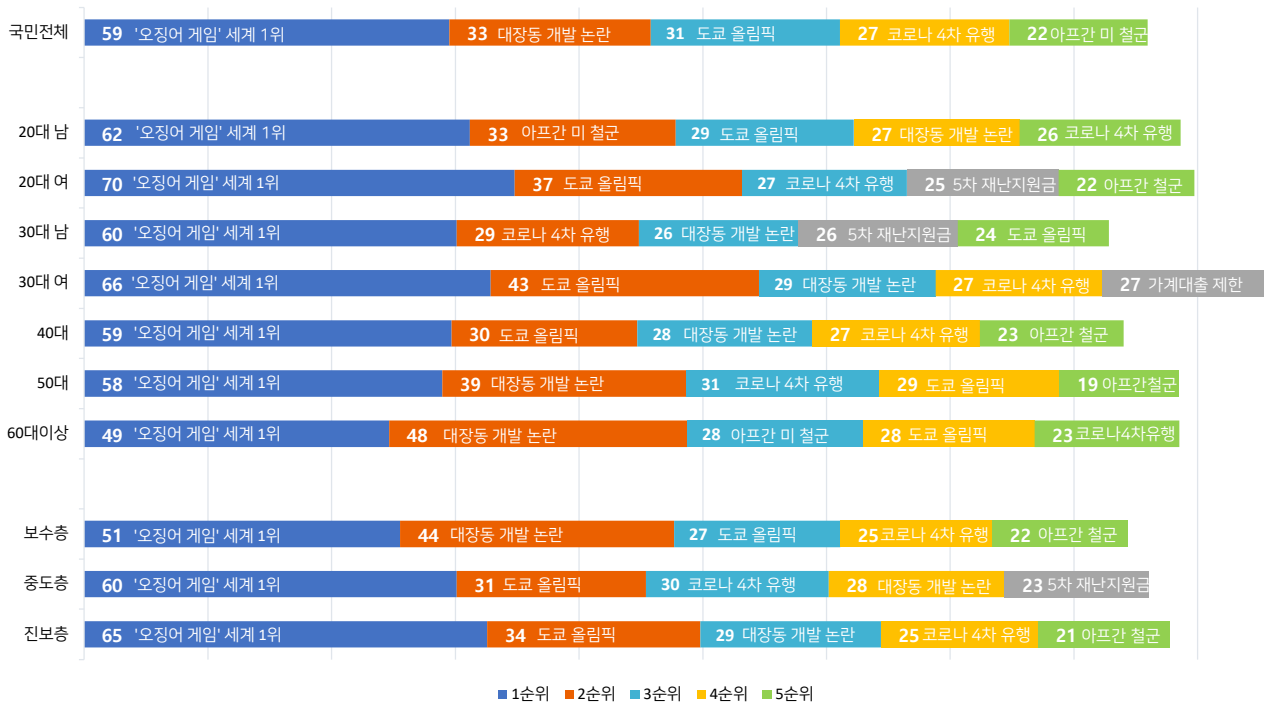
Kstat Point

- ☑ 2분기에는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이 2위를 기록하고, 3분기에는 '오징어 게임 세계 1위'가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인정에 대한 국민 기억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 국민들 사이에 문화를 매개로 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재명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보도 논란'이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상승세 지속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됨
 - :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 자체만으로 국민 다수의 기억에 있는 것은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 한편, 국제 이슈에 대한 국민 기억이 상위권에 있는데, 이는 과거 시대와 다른 흐름임
 - : 3분기 국제 이슈인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과 탈레반 재점령'은 기억나는 사건 5위에 오름
 - : 앞서 1분기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4위를 기록했고, '미얀마 쿠데타 발생, 유혈 사태' 역시 비교적 많이 손꼽힘('정인이법 국회 통과'와 동일한 16%를 기록함)
 - :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상에 이어 문화적 위상도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의 관심도 전 세계로 넓어진 것으로 보임

□ '오징어 게임 세계 1위', 모든 계층에서 1위

- 3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세계 1위'가 모든 계층에서 높은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함
 - BTS가 주도하는 K-Pop, 영화 '기생충'·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이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위에 대한 국민적 기억은 매우 강렬한 것으로 보임
- 국민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오른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에 오른 사건이 거의 비슷해, 3분기에 대한 국민 기억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20대 여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장동 개발 논란' 대체)
 - 30대 남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 대체)
 - 30대 여자, '가계대출 제한 중단'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 대체)
 - 중도층,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3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성/연령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 2021.12.05조사, 단위:%)



Kstat Point

- ☑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논란'은 국민전체적으로는 물론 거의 모든 계층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국민적 파장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대 여자만 예외적으로 12%라는 낮은 비중을 기록함)
- ☑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부동산 이슈라는 특징과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보임 :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서 보듯,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은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돌파할 때 지지율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4분기 : '위드 코로나 시행'과 '전두환 사망' 높아

- 4분기에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행”(41%)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38%)이었음
 - 4분기(10~12월) 주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14개를 제시했으며, 이 중 3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①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50억 리스트’ 파문	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③ 순수 국내기술 개발 로켓 ‘누리호’ 발사	④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⑤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행	⑥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⑦ 중부세 대상자.금액 급등 논란	⑧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
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⑩ 검찰,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
⑪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⑫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⑬ 넷플릭스 ‘지옥’ 세계 1위	⑭ BTS 그래미상 2년 연속 후보 선정
- 다음은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27%),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50억 리스트’ 파문’(2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26%) 등이었음
- 가장 응답이 적은 사건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3%)이고, 다음은 ‘검찰,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6%) 등임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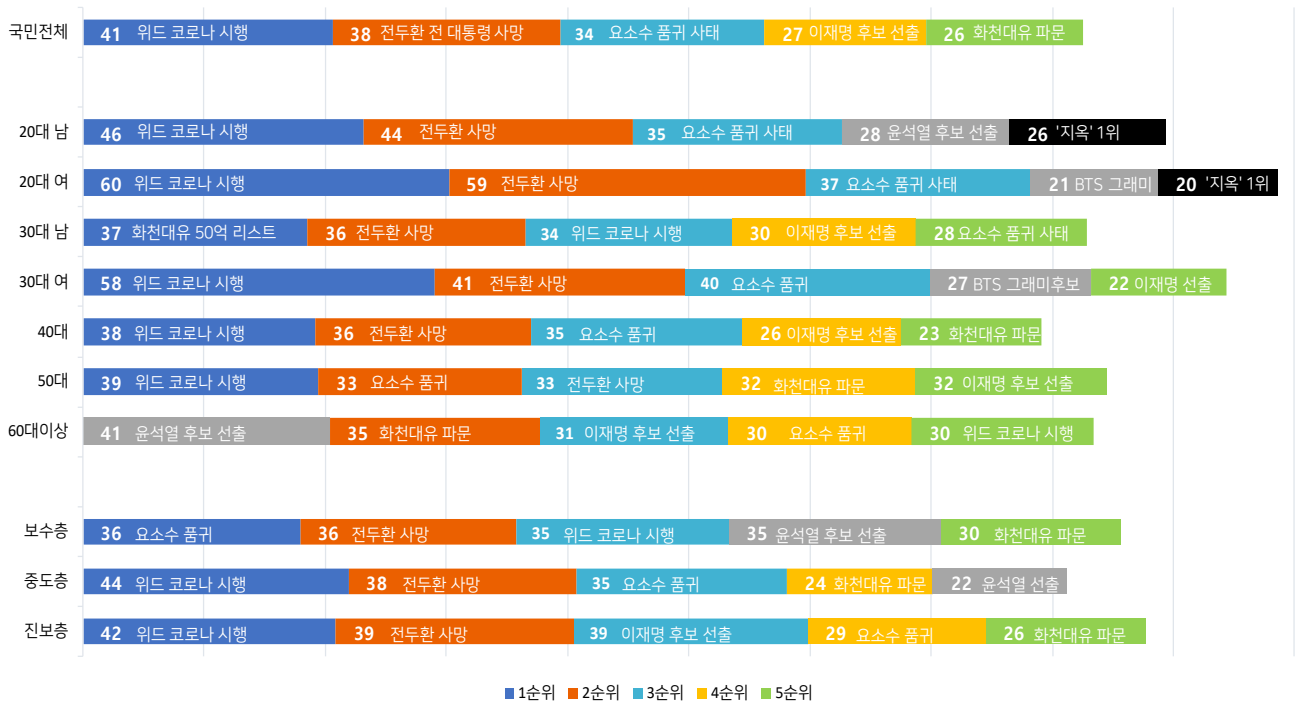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행)'가 1위를 기록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고통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보임 : 현재는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이 반복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민적 실망감이 클 것으로 판단됨
- ☑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기억은 각각 27%, 26%로 나타남 : 대통령 선거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감안할 때 두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고, 이른바 '팬덤' 양상도 찾아보기 어려움 : 향후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두 후보에 대한 관심이 아닌 선거 결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 한편, 언론을 중심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중부세 대상자.금액 급등 논란'에 대한 국민기억은 16% 수준에 그침 : 국민전체적으로 '중부세'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양 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기억, 계층별로 달라

- 계층별로 4분기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전체와 유사함
 - 계층별 순위는 다르지만 상위권에 위치한 사건은 거의 비슷함
 - 아래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양 당 대선 후보에 대한 기억 때문임
 - 20대 남자, '윤석열 후보 선출', '지옥 1위' ('이재명 후보 선출', '화천대유 파문' 대체)
 - 20대 여자, 'BTS 그라미 후보 선장', '지옥 1위' ('이재명 후보 선출', '화천대유 파문' 대체)
 - 30대 여자, 'BTS 그라미 후보 선장' ('화천대유 파문' 대체)
 - 60대이상, '윤석열 후보 선출' ('이재명 후보 선출' 대체)
 - 보수층, '윤석열 후보 선출' ('이재명 후보 선출' 대체)
 - 중도층, '윤석열 후보 선출' ('이재명 후보 선출' 대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2021년 4분기(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Kstat Point

- ☑ 양당 대선후보에 대한 기억은 관심도의 반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후보를 보면 표심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
- ☑ 이번 조사에 나타난 세대별, 이념별 관심 후보(상위권 위치 후보)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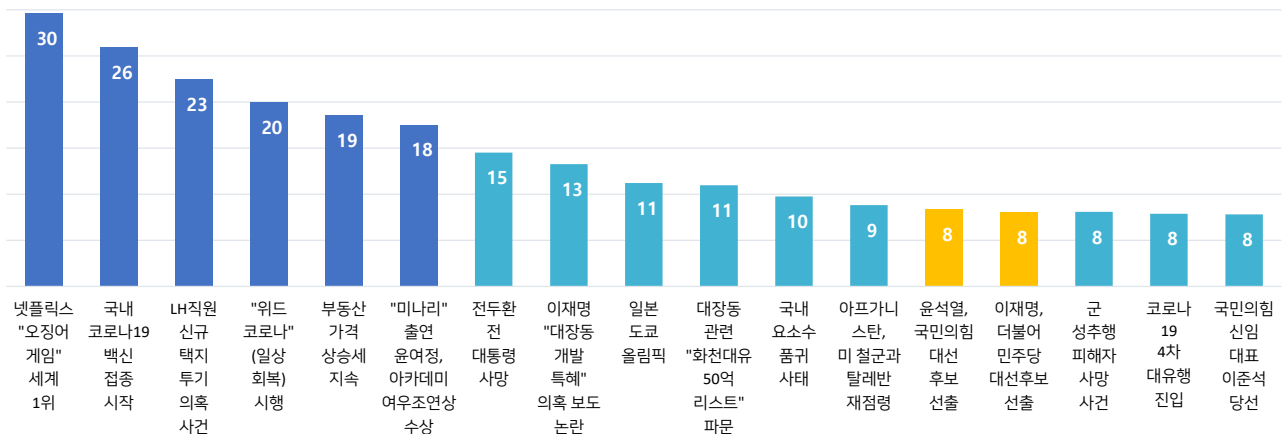
20대 남, 윤석열 후보 선출	20대 여, 없음
30대 남, 윤석열 후보 선출	30대 여, 이재명 후보 선출
40대, 이재명 후보 선출	50대, 이재명 후보 선출
보수층, 윤석열 후보 선출	중도층, 윤석열 후보 선출
	진보층, 이재명 후보 선출
- ☑ 계층별로 상위권에 위치한 후보가 겹치는 경우가 없는데, 그만큼 후보에 대한 관심이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

‘오징어 게임’ 가장 높고, ‘백신 접종’, ‘LH 투기’ 순

- 2021년 전체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세계 1위’(30%)로 조사됨
 - 각각의 응답자가 ‘분기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을 모두 제시하고, 그중 가장 기억나는 사건 4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임
-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6%), ‘LH 직원 신규택지 투기의혹 사건’(23%), “‘위드 코로나’(일상회복) 시행’(20%),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19%), “‘미나리’ 출연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18%) 순으로 나타남
- 양 당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된 사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공히 8%에 그침
- 한편, 국제 사건 중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미 철군과 탈레반 재점령’이 9%를 기록한 점이 주목됨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 2021.12.05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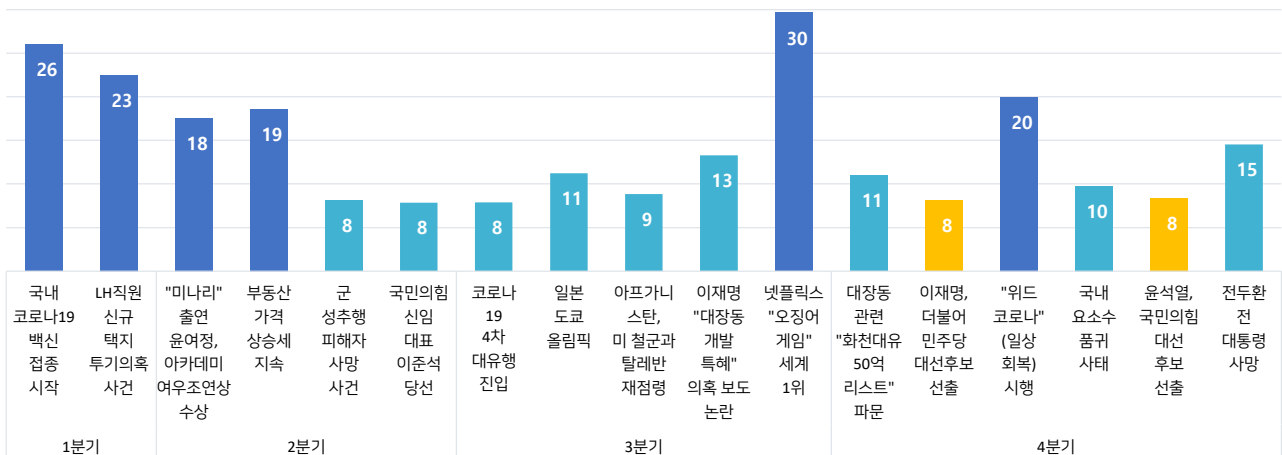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이 2021년 올 한해 가장 기억나는 사건으로 꼽은 것은 ‘오징어 게임 세계 1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 :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도 18%로 상위권에 위치, 국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이 26%로 2위를 기록하고, ‘위드 코로나 시행’이 20%로 4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 19 종식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 또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이 각각 3위(23%)와 5위(19%)를 기록,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양 당 대선후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윤석열 후보 선출’과 ‘이재명 후보 선출’은 공히 8%로 낮은 수준에 그침

□ 국민기억에 강하게 남은 사건, 1분기와 2분기에 많아

- 국민들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2021년 시기별로 재정렬한 결과 1분기와 2분기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앞서의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을 시간 순서별로 재정렬한 결과임
- 1분기는 사건 자체 수는 두 개지만 모두 강하게 기억되고 있음
 - 1분기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26%)과 'LH 직원 신규 택지 투기의혹 사건'(23%)이 발생함
- 2분기에는 네 개의 사건이 있고, 이 중 두 개가 강하게 기억됨
 - '배우 윤여정 아카데미 조연상 수상'(18%),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29%) 등이 2분기에 일어남
- 3분기는 다섯 개의 사건이 있으며, '오징어 게임 세계 1위'(30%)가 강하게 기억됨
- 4분기는 시기적으로 가까운 이유로 모두 여섯 개의 사건이 존재하지만, 강하게 기억되는 사건은 '위드 코로나 시행'(20%) 하나임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과 윤석열 대선후보 선출 모두 4분기에 일어났지만 공히 8%라는 낮은 수치를 기록함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 시기별 재정렬 (자료:케이스탯, 2021.12.05조사, 단위:%)



Kstat Point

- ☑ 2021년에 대한 국민기억을 시기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먼저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비교적 희망적인 사건으로 시작했으나, 곧바로 'LH 직원 투기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부동산 정책 및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됨
 - :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귀결됨
- ☑ 2분기 들어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국민적 자긍심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강화됨
- ☑ 3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암울한 분위기 속에 '오징어 게임 세계 1위'가 국민들에게 위안을 안겨줬으며, 이 기억은 지금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 :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 논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됨
- ☑ 4분기 들어 '위드 코로나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고, 실제로 실행되는 등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음
 - : 현 시점에서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어 그만큼 국민적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임
 - : 이러한 상황에서 양 당 대선후보가 확정되었지만 국민적 관심은 크지 않음

□ 계층별 가장 기억나는 사건, 다소 달라

- 2021년 전체 사건에 대한 계층별 기억은 대체로 비슷함
 - 대부분 계층은 '오징어 게임 1위', '백신 접종 시작', 'LH 투기 의혹', '위드 코로나 시행', '부동산 상승', '윤여정 수상' 등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과 검은색 막대는 국민전체 상위 5위에 속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함
- 국민전체 상위권 사건과 계층별 상위권 사건이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0대 남자, '전두환 사망' ('윤여정 수상' 대체)
 - 20대 여자, "전두환 사망" ('부동산 상승' 대체)
 - 30대 남자, '문 대통령, G7 참석' ('윤여정 수상' 대체)
 - 50대, '대장동 의혹' ('위드 코로나' 대체)
 - 60대이상,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파문' ('오징어 게임 1위', '위드 코로나' 대체)
 - 보수층, '대장동 의혹' ('윤여정 수상' 대체)
 - 진보층, '전두환 사망' ('부동산 상승' 대체)
- 한편, 양 당 대선 후보 선출을 기억나는 사건 상위권으로 올린 계층은 없음

2021년 전체 '가장 기억나는 사건'(복수응답) : 국민전체,성/연령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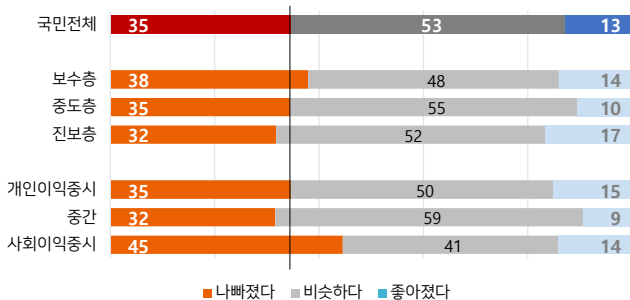
- ☑ 국민전체 및 계층별 상위권에 속한 사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이 많음
 - : 국민전체적으로는 'LH 투기 의혹', '부동산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상위 6개 중 2개가 부동산 관련 사건임
 - : 계층별로도 20대 여성과 진보층을 제외하면 이러한 흐름은 동일함
- ☑ 차기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임을 알 수 있음
 - : 다만, 후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 선거 결과에 주목한 진영대결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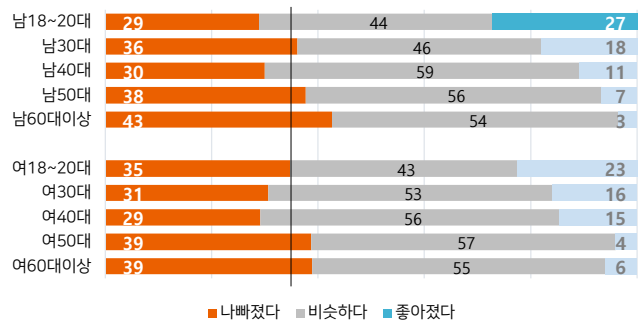
국민 대다수,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졌다'

- 우리 국민들은 올 한 해의 삶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53%), '나빠졌다'는 응답이 35%로 조사됨
 -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선생님의 삶이 작년(2020년)보다 좋아지셨어요, 나빠지셨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작년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나빠졌다'는 응답이 우세함
 - 남자 18~20대만 '나빠졌다' 29% vs '좋아졌다' 27%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음
- '나빠졌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사회이의 중시층 △남자 60대이상 △여자 5060세대 △서울, PK △고졸이하 △자영업,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전체의 '나빠졌다(35%)'에 해당하는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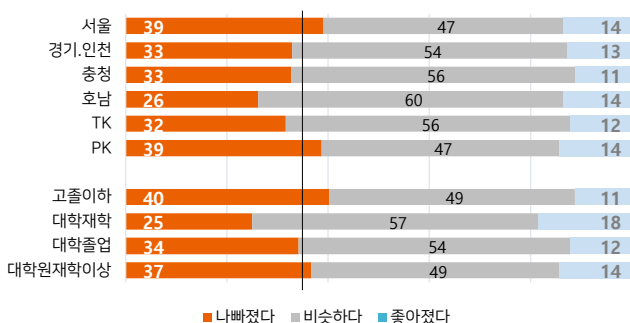
작년(2020년) 대비 올해 삶 평가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2.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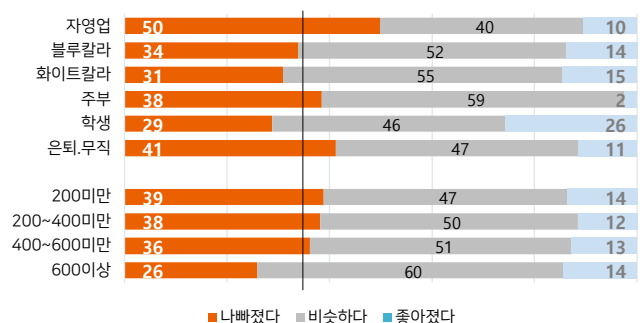
작년(2020년) 대비 올해 삶 평가 : 성/연령별 (단위:%)



작년(2020년) 대비 올해 삶 평가 : 지역별,학력별 (단위:%)



작년(2020년) 대비 올해 삶 평가 : 직업별,소득별 (단위:%)



Kstat Point

- ☑ 2021년을 돌아보는 우리 국민들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졌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 :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나빠졌다'는 응답이 50%에 달해,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임
 -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아져, 코로나19 충격이 소득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남
- ☑ 202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올해보다 나은 새해가 되기를 어느 때보다 강력히 원할 것으로 전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2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2호는 『연말특집 ② '만약에...' 가치와 직업의 가격』이라는 주제로 12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